

#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ir Mothers' Employment

김 미 경\*\*  
Kim, Mi Kyung  
이 숙 현\*\*\*  
Lee, Sook Hy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 perceive their mothers' employment. The subjects were 471 elementary school children(4th, 5th, and 6th graders) of working mothers. The instrument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5 indic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the child's knowledge about mother's employment, the child's perception of how he/she is affected by having a working mother, the child's perception of mother's feelings about her employment, and the child's perception of mother's interest in him/her predicted the child's attitude toward his/her mother's employment.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되는 산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72년에 여성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36.9%이었는데 1980년에는 38.3%로 증가했으며 1987년에는 40.4%로 증가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특히 전체 취업여성 가운데 기혼 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약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혼 취업여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0년경에 미국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

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가 없는 여성들보다 더 많이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기혼 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두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 역할을 극대화시킨 입장이며 Bowlby(1951), Moore(1964)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서 어머니 역할

\* 이 논문은 198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을 대신하거나 보충할 사람이 있어 계속 아동을 돌본다면 어머니가 하루중에 일부를, 혹은 일주일 중 몇 일 동안 집을 비워도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나 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Etaugh(1974), Hoffman(1974)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의 관점에서 종속 변인을 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나 학업 성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어머니 취업의 효과 유무를 논해왔다. 이러한 변인에서 차이를 보일 경우에도 그 차이가 진정한 어머니 취업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중재 변인들의 효과인지는 명확히 밝히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머니 취업의 중재 변인들, 즉, 사회 계층, 어머니가 직장으로 돌아간 시기, 대리 양육의 질, 지원 체계(support system)의 유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Anderson, 1980; Farel, 1980; Hoffman, 1979).

그리고 어머니 취업의 효과가 진정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들 스스로가 어머니 취업의 영향을 지각하고 있는지 또는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하다(Bronfenbrenner, 1961)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동 당사자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갖는 생각과 태도에 따라 취업한 어머니들이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는

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취업모와 그 자녀들간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관한 자료의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온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 취업의 영향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녀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단계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자녀도 이런 뚜렷한 발달 시기에 따라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가장 낙관하기 힘든 시기가 유아기라고 할 수 있다(Hoffman, 1979). 왜냐하면 애착이 정서 발달에 중요하고, 상호작용, 언어적 자극, 시각적 경험, 지속적 보상 등이 지적 발달에 중요한데 어머니가 유아결에 있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아를 가진 취업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유아간 또는 아버지-유아간의 애착과 대리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취업모의 유아가 어머니와의 정서적 애착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대리양육으로 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Belsky, Steinberg & Walker, 1982). 대리양육을 받는 취업모 자녀들의 애착과 의존성에 관해 연구한 Anderson(1980)은 매일의 격리 경험 그 자체보다 양육과 양육 환경의 질과 안정성이 아동의 반응을 결정짓는데 있어 더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달리 취업모 가정에서 어머니-유아간 애착이 불안정하기 쉽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의 취업모와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애착에 관해 연구한 Vaughn, Gove와 Egeland(1980)는 어머니가 출산 후 12개월이 안 되었을때 직장에 돌아가 대리 양육을 받은 취업모의 영아들이 Ainsworth의 낯선 상황 검사<sup>1)</sup>에서 불안정한 애착인 갈등-회피 유형을 많이 보여 주었음을 발견했다. Blehar(1974)의 연구에서도 대리 양육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2, 3세 아동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나타내는 행동양식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때 유아기의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어머니와 매일 격리되는 것은 어머니-유아 애착에서 갈등-회피 유형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어머니가 직장으로 돌아간 시기, 대리 양육의 질과 종류, 사회 계층 등의 중재 변인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학령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다루어지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Gold와 Andres(1978c)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비취업모의 자녀들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개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모의 남아들은 취업모의 여아, 비취업모의 남아, 여아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고, 아버지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취학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연구한 Owen과 Chase-Lansdale(1978)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el(1980)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학령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과 적성(competence)을 측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때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 수행간에는 상관인 거의 없었으며 직업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간에 일치를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이 불일치를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더 유능하고 학교에도 잘 적응했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어머니 취업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할 때 취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취업이 학령기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 사회 계층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old와 Andres(1978b)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10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개념, 적응, 학업 성취 등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취업모의 남아와 여아가 보다 개방적인 성역할 개념(broader conceptions of sex roles)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류층의 취업모의 남아들은 적응에 문제점을 보여 주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를 보다 부정적으로 기술했으며 더 소극적이고 신경질적(nervous)이었다고 한다. 또한 취업모의 남아들은 인지적 장애(cognitive difficulties)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중류 계층 취업모의 남아들은 같은 중류층의 비취업모의 남

1)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은 '낯선 상황' 검사('Strange situation' test)를 통해 유아의 애착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3가지 유형에는 안정된 애착, 불안정한 애착(갈등-저항), 불안정한 애착(갈등-회피) 등이 있다.

아보다 수학과 언어 학력검사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도 중류 계층 취업모의 남아들이 지능 검사 점수나 학업 성적이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Banducci, 1967; Brown, 1970; Frankel, 1964; Rees & Palmer, 1970).

이밖에도 어머니 취업의 영향이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많이 있다. McCord와 그 동료들에 의하면 하류층 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남아의 큰 성적 불안(sexual anxiety)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McCord, McCord & Thurber, 1963). 그리고 하류층 취업모의 남아들은 비취업모 가정의 남아보다 아버지를 덜 존경한다고 한다(Douvan, 1963; Lamb, 1982; Propper, 1972). 또한 Hoffman (1974)에 의하면 하류층의 취업모 남아에게는 어머니 취업의 일반적 효과인 성고정관념의 감소가 현저하지 않았고 아버지-아들 관계에 긴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하류층 가정의 경우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기 쉽고(Komarovsky, 1962),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머니가 취업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실패로 간주되며(Hoffman, 1979), 아버지의 가족내에서의 위치도 손상되기 때문이다(Elder, 1974). 그러나 취업모 가정의 남아와 달리 여아들은 일반적으로 적응을 잘 하며 학업과 직업적 자질이 우수하고 성역할 태도가 덜 전통적이고 직업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보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 경향을 띠었다고 한다(Hoffman, 1979; Lamb, 1982; Romer & Cherry, 1978). 또한 가사일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취업모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기여한다고 밝혀졌다(Smokler, 1975).

어머니 취업이 학령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여아에게는 어머니 취업이 성고정관념의 약화, 높은 자아 존중감과 학업 성취 등을 유도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결과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계층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머니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취업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종역할로 인한 긴장이 감소하게 되며 자녀들도 어머니가 부여하는 독립성과 책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되며(Gold & Andres, 1978a),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높은 직업적 동기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phan & Corder, 1985).

지금까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별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일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 그 자체보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등의 중재 변인이 어머니 취업의 효과를 결정짓는데 더욱 중요하다 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2.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머니 취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자녀에게 나타나는 발달적 효과에 주목해 왔으며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 스스로가 어머니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조명해 본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Trimberger와 MacLean(1982)은 취업한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해 보기 위하여 Canada의 대도시 3개 학교에서 5, 6, 7학년 아동 중앙 부모가 모두 있고 어머니가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중류 가정의 아동 51명을 표집하였다. 이 아동들에게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느낌과 태도, 성, 연령, 출생 순위, 어머니의 취업 기간, 어머니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 돌보는 사람 유무(supervision arrangement)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을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독립 변인은 아동의 성으로써 남아는 여아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이 적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과 어머니가 취업한 기간과는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인으로는 성과 출생순위를 들 수 있는데 차자가 장자보다,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어머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으로 아동은 지각하고 있었다. 넷째, 어머니가 아동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느끼는 아동은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며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아동의

관점을 취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장문희(1980)에 의하면 국민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느낌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32%의 아동들이 '아주 싫다'에, 16%의 아동이 '조금 싫다'에 답을 해서 모두 48%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조금 좋다'와 '아주 좋다'에 응답한 아동은 16%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의 관점을 통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연구해 본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문희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1980년에 비해 1989년 현재 어머니의 취업률이 더 증가되었으므로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동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태도는 어떠한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 가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 아동이 부정적 영향을 느낀 아동보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췌,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낀 아동이 그렇게 느끼지 않은 아동보다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7개 국민 학교 4, 5, 6학년 아동 가운데 어머니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아동 471명이다. 연구 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년	성		계
	남	여	
4	75	85	160
5	46	74	120
6	87	104	191
계	208	263	471

#### 2. 변인의 측정

#####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Trimberger와 MacLean(1982)이 사용했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에는,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어머니가 계속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는가,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싫은가 등이

포함되었다. 종속 변인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로 된 5문항으로서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5문항에 대해 내적일치도 값인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80으로 나타났다.

##### 2) 독립 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 변인은 4가지로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 어머니의 취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 등이다. 독립 변인도 종속 변인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을 측정하는 질문은 6문항이고, 나머지 3가지 독립 변인은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은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 나머지 3가지 독립 변인은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각 변인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가지 독립 변인별로 문항간 내적일치도 값인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62, .53, .66, .70 등으로 나타났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위의 4가지 독립변인 외에 고려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는 아동의 학년, 성별<sup>2)</sup>, 출생 순위, 형제자매수,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어머니가 취업한 기간, 방과후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집에 있는 시간, 돌보아주는 사람 유무

2) 아동의 성별과 돌보는 사람 유무는 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등 11문항이 포함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종속 변인, 4가지 독립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등을 측정하는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2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아동의 이해도와 용어의 적절성,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 22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신뢰도 계수인  $\alpha$  값이 .30이하인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아동들이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미리 선정한 7개 국민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의 담임 교사를 통해 대상 아동 572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방과후 교실에서 작성하게 한 다음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572부였으나 이 중 본 연구의 조건에 맞지 않는 아동, 사회 인구학적 질문에 응답을 기재하지 않은 아동 등 101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471부의 질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네 가지 독립 변인중에서 종속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무엇이고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변인은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대상의 배경 특성

연구 결과를 가설에 따라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 취업모들의 직업별<sup>3)</sup>, 교육수준별, 취업기간별 분포

변인	분류	빈도수	%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03	21.9
	사무직	29	6.2
	판매·서비스직	246	52.2
	생산·운수직	93	19.7
교육수준	대졸 이상	179	38.0
	전문대졸	18	3.8
	고졸	186	39.5
	중졸	66	14.0
	국졸	22	4.7
취업기간	1년 이하	102	21.7
	2년-3년	90	19.2
	4년-5년	58	12.3
	6년 이상	221	46.8

아동들이 방과후 어머니들의 귀가 전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돌보아 주는 사람에 관한 결과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어머니의 귀가 전까지 집에 있는 시간과 돌보는 사람별 분포

변인	분류	빈도수	%
어머니의 귀가전	(어머니가 먼저 오는 경우)	20	4.2
	1-3시간	189	40.1
	4-6시간	174	37.0
	7시간 이상	59	12.4
	'일정치 않다'와 무응답	29	6.1
계		471	100.0
돌보아주는 사람	할머니나 친척	169	35.9
	가정부나 파출부	40	8.5
	형제 자매	79	16.8
	기타	7	1.5
	없음	176	37.3
계		471	100.0

3) 직업의 분류 기준은 한국여성개발원(1986)의 여성취업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기준을 따랐다.

2.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

편차, 점수 범위는 <표4>와 같다.

4가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평균 및 표준

<표 4> 다섯가지 지표별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 범위

지 표	M	SD	최소값	최대값	최빈치
(1)*	19.76	4.20	6.00	30.00	18.00
(2)	18.17	3.60	7.00	25.00	19.00
(3)	16.75	3.97	6.00	25.00	16.00
(4)	18.95	4.12	7.00	25.00	21.00
(5)	15.03	4.72	5.00	25.00	15.00

\* (1)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가능한 점수 범위 : 6-30) (2)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지각(5-25) (3) 어머니 취업태도에 대한 지각(5-25) (4)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지각(5-25) (5)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5-25)

<표4>를 통해 볼때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은 평균이 19.7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나 문항수가 다른 지표보다 1문항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어

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가장 낮은 평균과 최빈치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측정한 5문항의 빈도는 <표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 문항의 빈도표

문항번호	질 문 내 용	빈 도				
		1*	2	3	4	5
12	어머니의 취업이 자랑스러운가	60	54	193	63	100
26	어머니의 취업을 싫어하는가	53	65	143	95	115
28	어머니의 취업으로 행복한가	88	125	154	74	30
30	어머니 취업이 도움이 되는가	46	181	52	97	95
34	계속 다니길 원하는가	85	128	94	106	57

\*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정말 그렇다

위의 표를 통해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의 취업을

싫어하고,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계속 직장에 다니길 원하지 않는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다회귀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독립 변인인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

각,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 종속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와 상호상관계수를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4가지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상호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0	.025	.062	.016	.045	.065	-.105	-.063	.128*	-.074	-.012	.061	-.031	-.046	.038	-.032
(2)		1.000	.043	-.011	.012	.014	.027	.108	.112	.017	.089	.093*	.114*	.111	.028	.037
(3)			1.000	.722**	.559**	.644**	.016	.121*	.131*	-.345**	.090	-.138*	-.108	-.208**	-.132*	-.265**
(4)				1.000	.596**	.537**	.065	.138*	.057	.304**	.076	.107	.113	-.216**	-.132*	.237**
(5)					1.000	.639**	.004	.045	.072	-.329**	.087	-.202**	-.115	-.259**	-.118	-.291**
(6)						1.000	-.048	.091	.076	-.561**	.036	-.239**	.200	.359**	-.115*	-.445**
(7)							1.000	-.026	-.004	.055	.060	.042	.079	.080	-.099	.081
(8)								1.000	-.129*	-.135*	.018	.054	.094	.091	.002	-.092
(9)									1.000	.091	-.259**	-.031	.005	-.041	-.091	-.030
(10)										1.000	.045	.226**	.027	.198**	.000	.323**
(11)											1.000	.020	.194	-.063	.058	.014
(12)												1.000	.211**	.380**	.425**	.443**
(13)													1.000	.425	.348**	.368**
(14)														1.000	.350**	.617**
(15)															1.000	.383**
(16)																1.000

\* (1)성 (2)학년 (3)아버지의 학력 (4)어머니의 학력 (5)아버지의 직업 (6)어머니의 직업 (7)어머니의 귀가전까지의 시간 (8)돌보는 사람 유무 (9)형제자매수 (10)취업기간 (11)출생순위 (12)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 (13)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아동의 지각 (14)어머니의 취업태도에 대한 지각 (15)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지각 (16)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

\* p<.01 \*\* p<.001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가지 독립 변인에 대해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6>과<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된 4가지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4가지 독립 변인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설명해 주는 총 변량의 46.9%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별로 검증

〈표 7〉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인	Beta	F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	.2044	27.21***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지각	.1087	7.78**
어머니의 취업태도에 대한 지각	.4673	136.45***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지각	.1074	7.23**
	R=.6848	R <sup>2</sup> =.469

\*\* p<.01 \*\*\* p<.001

결과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변인간의 상관 관계는  $r=.443(p<.001)$ 이며, 표준화된 회귀 계수도 0.1%수준에서 유의있는  $\beta=.204$ 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변인간의 상관 관계는  $r=.368(p<.001)$ 로 나타났고, 표준화된 회귀 계수( $\beta=.109$ )도 1%수준에서 유의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 자신의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r=.617$ 로서 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 계수도  $\beta=.467$ 로서 0.1%수준에서 유의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

해 아동 자신도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네째,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변인간의 상관 관계는 0.1%수준에서 유의있는  $r=.383$ 으로 산출되었으며 표준화된 회귀 계수는  $\beta=.107$ 로서 1%수준에서 유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4가지 독립 변인과 11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모두 포함시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무엇이고 종속 변인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변인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독립 변인과 11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6가지 변인만이 설명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표 8〉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N=417)

단계	변 인	Beta	R <sup>2</sup>	F
1	어머니의 취업태도에 대한 지각	.39247	.38059	83.48***
2	어머니의 직업	-.17238	.43788	14.80***
3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	.15384	.47736	13.95***
4	어머니가 관심갖는 것에 대한 지각	.13105	.49204	10.10**
5	어머니의 취업 기간	.11180	.49913	6.67*
6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지각	.08516	.50467	4.50*
		R=.7104	R <sup>2</sup> =.50467	

\* p&lt;.05 \*\* p&lt;.01 \*\*\* p&lt;.001

아동의 지식, 어머니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취업 기간,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지각 순으로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6가지 변인이 종속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약 50.5% 가량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식, 어머니 취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아동의 지각 등 4가지 독립 변인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다음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해 몇가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직장에 데려가 주고 직장에서 일

어난 일을 아동과 이야기하고 직업을 가지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등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긍정적 태도 형성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즉,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와 함께 놀거나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아동들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길 희망하고 있다.

셋째,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지각한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취업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는 전체 변량의 38%를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속 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의 취업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offman(1974)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Hoffman은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때 아동에 대한 효과도 긍정적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때 취업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경제적 필요 외에 자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직장에 다니길 희망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면 자녀들도 이같은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이해를 잘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재,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도 신경을 써 준다고 지각한 아동들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Trimberger와 MacLean(198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이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은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그리워하게 되며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을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경쟁으로 여겨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그들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문화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에 대한 사상이 강조되어 왔고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배워 왔다. 그러므로 취업한 어머니가 바쁜 시간과 이중 역할로 인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머니를 고맙게 여길 것이며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문화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보다는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어머

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한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인(sporadic) 취업이 지속적인 취업보다 아동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한 Heynes & Catsambis(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과 어머니의 취업기간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 기간이 오래 된 취업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취업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며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취업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 생활이 과거에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나 다른 비취업모들에 비해 특별한 점으로 여겨지기 쉬우며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도 당황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의 취업 기간이 오래 되었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낀 점은 전문직 취업모들일수록 취업 기간이 긴 경우가 많으므로( $r=.56$ ) 어머니의 취업 기간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되며, 한편으로는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아동의 지각,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앞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 아동일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

진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아동의 시각과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아동의 시각을 의의있게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직업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별로 이 두가지 변인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진분직 취업모의 자녀들이 생산직, 판매직 취업모의 자녀들과 이 두가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들이 비교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F=19.13, p<.001$ ) 어머니의 취업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시각하고 있었다( $F=6.11, p<.001$ ). 그러므로 전문직 취업모 자녀들의 이러한 시각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와 연구 대상자들의 배경적 특성을 토대로 하여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제언을 해 보면, 우선 취업모들이 직장에 다닌 기간은 1년 이하가 약 22%, 2-3년이 19.2%로서 최근에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런 어머니들은 노동 시장에 일찍 참여한 어머니들보다 직업이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자녀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자녀들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변화나 혼란을 가장 적게 느끼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들의 귀가 시간에 대해 살펴 보면 아동이 집에 돌아온 후 3시간 이내에 귀가하는 경우가 44.3%로 나타났으나, 7시간 이상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12.4%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간 동안 아동들이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방과 후 가장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 본 결과 44.2%의 아동들이 “어머니가 일찍 집에 돌아 오시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실을 보더라도 취업모 자녀들이 어머니가 집에 없는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62.7%였고 없는 경우가 37.3%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손위 형제가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면 할머니, 친척, 파출부나 가정부 등 성인이 돌보아주는 경우는 전체의 44.4%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의 경우 독립심 훈련도 필요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기에는 빠른 시기로 보여지는데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집에서 아동들끼리만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준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시각, 어머니의 취업 태도에 대한 시각,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시각 등의 지표에서는 평균 점수로 볼 때 긍정적인 쪽에 더 가깝게 반응했으나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동 자신의 태도는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은 척도의 중앙에 해당되는 점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주듯이, 취업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불만점이 있는가 등을 검토하는 등의

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는 한편 어머니 스스로가 직업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좀 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이해를 잘 하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적으로 아동의 응답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 기간 등에 대한 응답에서 아동의 지식이 부족해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1 한 연구시 사회 계층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부모의 직업과 부모의 학력만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시 가족의 수입을 포함해서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어서 타당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 조사의 공통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즉, 조사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고 응답자의 동기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아동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연구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도구를 제작함으로써 방법론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과 4가지 독립 변인, 종속 변인을 가지고 경로 모델(path model)을 개발해서 각 변인들간의 상호관계와 중재 변인 등을 밝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태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의의있다고 하겠다.

넷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연구할 때 국민학교 아동 이외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강분희(1980).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자녀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9, 121-139.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8). 한국통계연감. 35호, 서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Anderson, C. W. (1980). Attachment in daily separation: Reconceptualizing daycare and maternal employment issues. Child Development, 51, 242-253.
- Banducci, R. (1967).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the achievement,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child.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6, 263-

- 267.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 Belsky, J., Steinberg, L. & Walker, A. (1982). *The ecology of day care*. In M. Lamb(Ed.), *Childrearing in nontraditional families*.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Blehar, M. (1974). Anxious attachment and defensive reactions associated with day care. *Child Development*, 45, 683-692.
- Bowlby, J. (1951).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Bronfenbrenner, U. (1961). Toward a theoret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ocial context. In J. C. Glidewell(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Brown, S. W. (1970).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employment and nonemployment*.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niversity Microfilms 70, 8610.
- Douvan, E. (1963). Employment and the adolescent. In F. I. Nye & L. W. Hoffman(Eds.), *The employed mother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 Elder, G. H. (1974). *Children and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taugh, C.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0, 71-98.
- Farel, A. M. (1980). Effects of preferred maternal employment, and sociodemographic status o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1, 1179-1186.
- Frankel, E. (1964). Characteristic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mong intellectually gifted high and low achiever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2, 776-780.
- Gold, D. & Andres, D. (1978a).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adolescent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24, 243-254.
- Gold, D. & Andres, D. (1978b).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49, 75-84.
- Gold, D. & Andres, D. (1978c). Relations between maternal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nursery school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0, 116-129.
- Heynes, B. & Catsambis, S. (1986). Mother's employment and children's achievement: A critique. *Sociology of Education*, 59, 140-151.
- Hoffman, L. W. (1974).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

- 204-228.
- Hoffman, L. W. (1979). Maternal employment: 1979. *American Psychologist*, 34, 859-865.
- Komarovsky, M. (1962). *Blue-collar marriage*. New York: Random House.
- Lamb, M. E. (198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A review.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rearing*.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McCord, J., McCord, W. & Thurber, E. (1963).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lower class boy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177-182.
- Moore, T. W. (1964). Children of full-time and part-time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2, 1-10.
- Owen, M. T. & Chase-Lansdale, L. (1978). Maternal employment and its relationship to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chigan.
- Propper, A. M. (1972).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adolescent roles, activities, and par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17-421.
- Rees, A. H. & Palmer, F. H. (1970). Factors related to change in mental test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3, 2-7.
- Romer, N. & Cherry, D. (1978). *Developmental effects of preschool and school age maternal employment on children's sex role concepts*. Unpublished manuscript, Brooklyn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Smokler, C. S. (1975). Self-esteem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female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5).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3599B.
- Stephan, C. W. & Corder, J. (1985). The effects of dual-career families on adolescents' sex-role attitudes, work and family plans, and choice of important 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921-929.
- Trimberger, R. & MacLean, M. J. (1982). Maternal employment: The child's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469-475.
- Vaughn, B. E., Gove, F. L. & Egeland, B.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home care and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Child Development*, 51, 1203-1214.